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ising of Academic Library Funds in Korea

최 용 관(Young-Gwan Choi)**

서 진 원(jin-Won Suh)***

목 차

- | | |
|---------------------------|------------------------|
| 1. 서 론 | 2.3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 내용 |
| 1.1 연구의 목적 | 3.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 전략 |
| 1.2 선행연구 | 3.1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의 장애요인 |
| 2. 국내의 대학도서관기금의 유형과 조성 내용 | 3.2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의 성공요인 |
| 2.1 도서관기금의 필요성 | 3.3 대학도서관기금의 전략적 조성 방안 |
| 2.2 도서관기금의 유형 | 4. 결 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금 모집 실태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금조성과 운용을 위한 도서관진흥원의 설립과 미국의 Development Impact Fee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도서관 후원조직을 통한 기금 조성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aise academic library funds in Korea through how to raise funds and what conditions are. In order to do this, case studies on academic library funds of university in America as well as academic library funds of university in Korea have been analyzed. As for the specific plan for raising academic library funds, I have indicated to establish office for library development and include library as one of allotment for infrastructure which is similar to the Development Impact Fee in the U.S.A., and the use of library supporting organizations like "Library Friends."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기금, 대학도서관기금, 도서관기금의 유형

Academy Library, Library Fund, Academy Library Fund, Types of Library Fund

* 이 논문은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choinubira@hanmail.net)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www@chonbuk.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1월 15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국제화시대의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다른 선진국 대학교와의 비교를 통한 체질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또한 취학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소와 맞물려 정부는 대학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 속에서 대학도서관도 점점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는 지금 대학도서관은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의 건립, 학술자료의 단가 인상, 인적자원의 고도화 비용,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점증하는 비용에 대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 조달 방식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자원 조달 방안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대학도서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즉 대학도서관도 기존의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료, 인적자원, 재정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관 재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이는 연구의 균형과 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는 1997년에 시작된 IMF시대를 경험하면서 도서관이 얼마나 재정적인 문제에 취약한지를 몸소 경험했다. 도서관의 모체기관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서관은 우선적인 예산 삭감대상이 되었으며, 사서는 일차적인 감원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비하여 도서관만의 발전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야 될 시대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연세대 등 일부 대학도서관 신축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이 처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재원마련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학도서관기금이라는 시의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요성이 큰 주제에 대한 논의와, 대학도서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와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대학도서관기금이 어떤 필요성 아래 조성되고,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며,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 여부와 조성방법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도서관의 실정에 적합한 기금의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1.2.1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대학도서관기금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거의 없으며, 다만 일부 연구자들이 도서관의 자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기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윤희는 대학도서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대학도서관 개발이란 대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립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독립적 기금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도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대학도서관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 기금조성과 도서관의 친구 커뮤니티를 들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의 친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제 시스템과, 기금 조성고 관련하여서는 메이저 기증, 자산기금, 기금조성 행사, 계획된 기부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조윤희 2005).

노문자는 도서관의 후원 기금에 관한 연구에서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법과 후원기금 내용과 도서관 후원기금의 현황, 후원기금과 전문가, 그리고 도서관 후원기금 확보 과정을 통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기금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 조성 방안을 고찰하였다(노문자 1999).

1.2.2 국외 선행연구

외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대학도서관 기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대학도서관 자료의 증가와 구독비용의 상승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기존의 대학으로부터의 예산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 왔다. 대학도서관기금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기금조성의 과정과 기금조성 프로그램의 활동기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금 조성액 차이, 기금조성 인력에 대한 조사, 기금 조성 캠페인의 전개과정 등을 연구하였다.

Eaton은 대학도서관의 점증하는 예산 삭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서가 도서관기금의 조성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에서의 기금조성은 도서관 직원과 대학 발전 담당 직원, 교수, 총장과 외부 자원 봉사자들간의 상호 협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Eaton 1971).

Burlingame은 미국에 있어서 도서관기금 조성이 도서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서관기금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기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Burlingame 1994).

Latour는 대학을 크게 연구중심 대학,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석사학위 수여 대학, 학사학위 수여 대학으로 구분하여 총 5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341개 대학이 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했다. 즉, 그가 조사한 대학의 약 3분의 2가 기금조성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금조성 이유는 자료 확보와 도서관 장비의 점증하는 비용 때문이라고 하였다(Latour 1995).

Paustenbaugh는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에 속해 있는 대학도서관 중에서 기금조성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기금조성 과정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효율성을 평가 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서관이 조성한 기금과 대학당국에 의해 조성한 기금을 비교하였다. 둘째, 자원봉사 조직의 지원 아래 모금한 금액과 기금조성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액수와 비교를 통하여 기금 조성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Paustenbaugh 1999).

Hoffman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대학도서관기금 조성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이 대학도서관 업무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23개 캠퍼스의 도서관 중 17개 도서관이 기금조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도서관 기금조성 프로그램의 활동기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기증자의 수, 기금 조성 책임자와 투입 업무량의 상관관계,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금 조성액 차이, 기금조성 인력의 신분, 기금조성과 근무경력과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였다(Hoffman 2000).

Martin은 대학도서관을 위한 주요 기부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기금조성 캠페인과 기금조성을 위한 조직의 형태는 어떤 유형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직원의 충원은 어떻게 해야 하며, 대학내의 후원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도서관의 친구들을 모집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여행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내에서 도서관 발전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하였다(Martin 2000).

Paustenbaugh과 Trojahn은 대학도서관을 위한 연간 기금프로그램(annual fund program)을 연구하였다. 즉 연간기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도서관의 후원그룹을 파악하고 도서관에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금 권유 메시지가 기존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더불어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 전략들을 소개하였다(Paustenbaugh과 Trojahn 2000).

Butler 등은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에 있어서의 성공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University of Tennessee, Brown University, SUNY-Albany, University of Kentucky, University of Cornell, University of New Hampshir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등 8개 대학을 조사 하였다. 그들은 기금조성 과정의 목표 설정 과정과 도서관기금 조성을 대학내 기금 조성 우선 순위로 만드는 과정, 기금조성 캠페인의 전개과정, 그리고 목표 달성 후의 성과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Butler 2001).

Winston과 Dunkley는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기금조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맥락에서 리더십 능력에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대학사서와 관리자들과 관련된 리더십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로서, 대학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전문지식, 경험, 기술의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Winston과 Dunkley 2002).

Hazard는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의 99개 회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기금조성 내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금조성과 7가지의 세부적인 대학도서관 발전과 연관된 요소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즉 초기 화면에서 기금조성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으면 level 0으로 하고, 두 번째 단계는 level 1, 세 번째 단계는 level 2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ARL 회원도서관 99개중 67개의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level 0의 단계는 64.1%, level 1의 단계는 26.9%, level 2의 단계는 9%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에 같은 주제를 놓고 연구한 Yaping Peter Liu에 의해서 보고된 43%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라는 것을 밝혀냈다(Hazard 2003).

2. 국내외 대학도서관기금의 유형과 조성내용

2.1 도서관기금의 필요성

대학도서관 기금의 조성은 단순히 도서관 운영예산의 증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금전략을 짜야 한다. 모금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SWOT분석 즉 도서관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도서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자연

적으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내부 플랜이 짜여지며, 도전해야 할 목표가 생김으로써 조직의 응집력이 자연히 생기게 된다. 조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또한 기금조성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받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의 사회적 기반이 넓어지고 이용자도 증가할 것이다. 즉 도서관에 우호적이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도서관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노문자도 도서관 후원기금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기금조성의 중요성을 “도서관 후원기금의 조성은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에 대항하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다”고 강조하였다(노문자 1999, 191).

또한 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사서와 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은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의 재고와 저변 확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 폭넓은 예산회계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를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도서관계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Totterdell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사서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는데, 그 하나로서 사서들은 조직관리와 함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재정, 예산, 회계, 모집 및 조직의 이론에 통달해야 한다고 하였다(엄영애 2004, 174).

현재 구미 선진국의 대학도서관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아홉 개 캠퍼스의 도서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

른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즉 예산의 축소, 학술정보의 양과 학술정보가 생산되는 포맷 종수의 증가,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비용 인상과 학술정보에서 증대하는 디지털 구성요소의 손쉬운 저장·조직·제공·이용·보존 및 장기적 관리를 촉진할 통합적 기술의 결여 등이다(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6, 6).

OCLC의 회장 겸 CEO인 Jay Jordan은 대학도서관들이 축소되는 기부금, 축소된 재정지원, 증대되는 비용 및 변화되는 서비스 요구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 Colorado 주립대학의 대학도서관장인 Catherine Murray-Rus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대학도서관장인 Brian Schottlaender, University of Arizona의 대학도서관장인 Carla Stoffle 등 13인의 도서관계 리더들이 애리조나의 투산에 모여 대학도서관의 현실과 위상에 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학술정보 가격의 기록적 인상: 저널가격의 경우 연 6-12% 인상을 보임.
- 온라인 저널과 색인 출판사들과의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때문에 종종 비싼 패키지나, 중복된 인쇄버전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함.
- 숙련된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비용 상승.

영국에서도 1990년대의 경우 대학의 예산규모가 축소되면서 도서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예를 들어, 대학재정지원위원회의 전체예산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1980-1981년에 4% 이상이였

던 것에 비해, 1991-92년에는 2.8% 정도로 줄었다. 또한 Loughborough의 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가 매년 작성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통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줄어드는 도서관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즉 영국 대학들의 전체 기관 예산 대비 도서관 예산이 1992-93년에 2.9%, 1996-97년에 3.2% 였던 것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1-2002년에 이어 2002-2003년에는 2.8%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에서도 2002년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과 학훈련부가 간행한 보고서인 Higher Education at the Crossroads: An Overview Paper에서 호주의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의 축소 당위성과 그에 따른 대학들의 자구책 마련 필요성이라고 하였다(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6, 6-8).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도 재원의 부족으로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자료의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부가 2002년 발표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일 년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는 12%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광주의 어느 공공도서관 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은 그 기본 성격으로 볼 때 지식과 정보의 활발한 유통과 이를 활용한 지식과 정보, 재화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서비스 중심기관이기에 재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여서, 전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정부 예산 이외에 다른 자금

원을 찾으려는 도서관과 민간 차원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운용보다 비교적 그 운용이 자유로운 대체 자금원에 대한 필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백호승 2006)고 하였다.

2.2 도서관기금의 유형

우리나라는 현재 도서관기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일부 사례가 있더라도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서관기금이라는 계정만 따로 구분하여 놓은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연방·주·지방정부 사이의 독특한 권력의 분산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 재원은 크게 연방정부기금, 州정부기금, 지방세, 기부금을 비롯한 기타 등으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Janet Christine Potts & Vincent de P. Roper는 미국의 도서관기금 조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첫째, 정부 보조금(연방정부, 州), 둘째, 기부(개인, 기업), 셋째, 지정기부금(endowments), 넷째, 재단/신탁기금, 다섯째, 도서관의 친구들, 여섯째, 특별 이벤트, 일곱째, 머천다이징(Merchandising)¹⁾

등이다.

반면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동문, 학부모, 기업, 도서관의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도서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Albany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²⁾

가. 연간기부금(annual fund)

연간기부금은 연간 일정 금액을 도서관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맺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Albany는 Annual Fund를 President's 클럽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모금하고 있다.³⁾

\$10,000 or more	David Perkins Page Society Gifts
\$5,000 to \$9,999	Founder Gifts
\$2,500 to \$4,999	Sponsor Gifts
\$1,000 to \$2,499	Member Gifts

The University of Texas - Austin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Annual Fund 기부자를 구분하고 있다.⁴⁾

- Library Associate: 학생 \$25, 직원 \$50
- Fellow: \$100
- Scholar: \$250
- Texas Book Society: \$500
- Library Excellence Club: \$1,000~ \$5,000

1) 시장조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수요 내용에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서 적정 가격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책, [네이버백과사전, 2006. 8. 15 인용].

2) <http://library.albany.edu/giving>, [cited 2006. 6. 7].

3) <http://library.albany.edu/giving>, [cited 2006. 6. 6].

4) <http://www.utexas.edu/support/news-pub>, [cited 2006. 7. 29].

또한 연간기부금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

- Annual Fund 기부자들의 이벤트에 초대
- 도서관 강의, 전시회, 리셉션 공지
- 텍사스대학 도서관 소식지 정기구독
- 도서관 특별이벤트에 초대
- 모든 텍사스대학 도서관 대출 자격 부여
- Perry-Castaneda 도서관에 기부자 bookplate 부착 등

나. 고액기부금(major gifts)

고액기부금은 일시적인 형태로 도서관에 상대적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형태로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Albany는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 University Library(\$3,000,000)
- New Library(\$4,000,000)
- Science Library(\$1,000,000)
- Rebuilding / Restoration Dewey Library(\$50,000 - \$2,000,000)
- 도서관의 방에 기증자 이름 부여 (\$50 - \$350,000)

다. 지정기부금(endowments)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특정 목적으로만 집행되며, 원금은 놔두고 이자 등 수익으로만 운영되는 기금이다. 이것은 재원이 소멸될 때까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소액 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10,000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구입한 도서에는 장서표(bookplate)

를 부착하여 기념한다. The University of Texas

- Austin는 지정기부금(Endowments)을 도서관 자료 혹은 장비 구입과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모금하고 있으며, 다음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의 경우이다.

- New Endowed Collections Funds
- Current Endowed Collections Funds
- Deferred Endowed Book Funds
- Endowed Funds for General Library Support
- Endowed Library Scholarship and Award Funds
- Endowed Library Preservation Funds
- Endowed Library Annual Events

라. 기획기부금(planned giving)

도서관 재단을 만들기 위해 모금하는 방법이 다. 기부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물품은 현금은 물론 증권, 부동산, 예술작품 등 다양하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정도서기금, 학생 혹은 교수직, 특정장서, 강의실, 특정 장비, 건물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문자는 기획기부금을 현금이나 재산을 어느 특정 시점, 즉 기부자가 더 이상 돈을 필요로 하지 않은 시점, 예를 들어 기부자의 사망 후 수령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슷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처치식기부(Deferred Giving)을 들었는데, 이 방법은 기부자의 유언장에 기부 의사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노문자 1999, 203).

마. 장서구입기금(book fund and endowment)

특정 분야의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 모금하는 방법이다. 이 기금은 특정 분야의 장서 구입을 위해 쓰여 지는데, 예를 들면 “나노과학”등이다. 또한 특정 오디오 혹은 비디오 컬렉션을 구입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BBC - Time / Life of the Shakespeare 비디오 컬렉션의 구입 혹은 대체를 위한 경우이다.

2.3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 내용

2.3.1 외국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

미국의 경우 도서관기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도서관기금 조성 프로그램이 연간기금 조성운동, 학계,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지원 세력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일단의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후원그룹이 조직되고, 후원조직의 충성심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연간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에 대한 개별적 헌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도록 고무시키는 과정을 거친다(Susan 2000, 562).

Thomson, Ronelle K. H는 대학도서관기금은 보조금과 기부금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으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은 창조성과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학도서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 보조금 기회, 도서관의 필요, 개인 후원자들, 현금 혹은 기부금 등 크게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Thomson 1991).

Terry stephen latour는 미국의 517개 대학

을 대상으로 기금조성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금조성 활동의 1순위는 재단 보조금 이었으며, 2순위는 헌책 판매 행사, 3순위는 정부 보조금, 4순위는 기관 차원의 캠페인, 5순위는 도서관의 친구들, 6순위는 기업의 지원, 7순위는 DM발송, 8순위는 기금조성 캠페인, 9순위는 Major gifts 캠페인, 10순위는 특별이벤트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가 도서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두 가지 수준의 도서관기부를 위한 기금의 형태를 보여 준다. 즉 \$5,000미만과 \$5,000이상의 두 가지 형태이다. 또한 5년에 걸쳐 \$10,000 혹은 \$25,000 기부 프로그램이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학의 다른 부문과는 달리, 도서관은 \$10,000 혹은 \$25,000의 기부로도 훌륭한 활용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 조성시 연간 \$1,000 기부 동문은 기금조성 담당자의 설득을 통해 년 \$2,000 혹은 5년 동안 \$5,000 기부로 전환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Susan 2000, 560-578).

한편 기부금은 그 기부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되는데, 도서관 건물 곳곳에 기부자의 이름을 기부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명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면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Albany은 기부금 규모에 따라 도서관 건물의 각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을 기획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빌딩 이름은 \$5,000,000, 하나의 주요한 방에는 \$300,000, 자료보존실은 \$200,000, 특별한 수집품의 연구실은 \$100,000, 세미나룸은 \$75,000, 디지털 교실은 \$50,000, 그룹 스

터디를 위한 룸은 \$20,000, 서비스 데스크는 \$20,000, 도서관 서가는 \$5,000, 학습 테이블은 \$3,500, 학습 열람석이나 혹은 로비의 벤치는 \$2,500 등이다(Butler 2001, 55).

Kentucky 대학의 경우도 기부자가 \$100,000 혹은 그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명명한 도서 열람실이 있으며,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 기회에 대한 기부자 레벨은 \$500의 개인용 학습 열람석까지 내려간다. 이러한 기부가 행해질 때, 대학은 중요 기부자에게 열람실을 헌납하는 행사를 개최 한다(Butler 2001, 69).

Cornell 대학도서관은 \$10,00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기부를 한 기부자들이 도서관의 일정공간을 선택하여 그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공간은 개인 열람실(\$10,000 기부 수준)에서 참고데스크와 정보데스크(\$500,000 기부 수준)까지 다양하다.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는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모금하고 있다(Butler 2001, 97).

- Webrook Society: 연간 기부 금액

\$1,000 - \$10,000

- Chancellor's Circle: 일생 동안의 기부액 \$25,000 - \$249,000
- President's Circle: 일생 동안의 기부액 \$250,000 이상
- Heritage Circle: \$5,000 이상의 유산과 부동산 기부

조윤희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 개발의 방법으로 회원제시스템, 메이저기증(major gift), 자산기금, 기금조성 행사 등을 열거하였다. 즉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 회원을 모집하여 도서관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서관 회원을 통한 기금조성에 대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고 하였다(조윤희 2005, 6).

반면 California State University-LA(CSULA)의 경우는 도서관의 친구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⁵⁾

더불어 이러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 방법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각 대학들의 조성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도서관 회원의 종류와 공헌 금액

도서관회원 유형	금액(\$)
학생 등 준회원(Student or senior member)	25
일반회원(Regular member)	40
가족회원(Household membership)	65
친구(Friend)	100
기증자(Donor)	250
단골기증자(Patron)	500
후원자(Sponsor)	1,000
재산기증자(Benefactor)	5,000

5) <http://www.calstatela.edu/library/FOL/>, [cited 2006, 7, 19].

〈표 2〉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LA의 도서관의 친구들 모집 방법

Friends of the Library - Online Application Form	
<p>Select MEMBERSHIP CATEGORY</p> <p>Please check ONE box ONLY</p> <p><input type="checkbox"/> Regular \$35</p> <p><input type="checkbox"/> Supporter \$100</p> <p><input type="checkbox"/> Patron \$250</p> <p><input type="checkbox"/> Business/Institution \$250</p>	<p>YOUR CSULA AFFILIATION:</p> <p>Please check ANY box which applies</p> <p><input type="checkbox"/> CSULA Student</p> <p><input type="checkbox"/> CSULA Alumnus</p> <p><input type="checkbox"/> CSULA Faculty / Staff</p> <p><input type="checkbox"/> CSULA Emeritus Faculty / Staff</p> <p><input type="checkbox"/> Community Library User</p> <p><input type="checkbox"/> Researcher</p> <p><input type="checkbox"/> Parent of CSULA student</p> <p><input type="checkbox"/> Business/Institution</p>

가. Michigan State University(MSU)⁶⁾

1994년 The Senior Council for MSU's Class 는 미시간 주립대학의 동문들, 교수들과 직원 들로부터 도서관을 위한 기금을 조성 하였다.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도서와 연속간행물의 구입, 신기술의 도입과 보존 그리고 특별장서 등 을 위한 것이다.

MSU 도서관은 「Save America's Treasures」 의 보조금 \$127,249를 받았다. 이 보조금은 미 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장서인 미국의 건국초기 교과서와 Sunday school books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도서관의 기금조성을 위한 세부방법은 Endowment, Gifts of cash, Gifts of collections, Life income, Planned Giving, Retirement Plans 등이다. 대표적인 지정기부금으로는 Beninon Family Library Endowment가 있다. 또한 Planned Giving 등 기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온라인으로 해준다.

나. Stanford University⁷⁾

스탠포드 도서관에 기부를 하는 방법은 크게 Planned Giving, Bequests, Life income Gifts, Noncash Gifts(부동산, 증권, 생명보험), Retirement Plan 등이 있다. 이 대학의 특징은 「The Association of the Stanford University Libraries(ASU)」가 결성되어, 이 협의체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대학의 기금조성 방안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elebration Fund & Memorial Fund

이 기금의 목적은 특정 개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의 출생, 기념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부자와 관련된 내용을 새긴 북플레이트를 도서관에 부착시킨다. 북플레이트는 기부자를 위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고안된 것을 ASUL의 웹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6) <http://www.lib.umich.edu>, [cited 2006. 8. 10].

7) <http://library.stanford.edu>, [cited 2006. 8. 10].

○ Endowed Book Funds

The Association of the Stanford University Libraries는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음과 같은 지정도서기금을 설치하였다.

- ASUL - Humanities Book Purchase Fund
- Centennial Campaign Library Book Fund
- Paul R. Hanna Life Membership Book Fund
- Russell A. & Lenore Nielsen Memorial Science Library Book Endowment Fund
- Greg G. Peterson Memorial Book Fund

다. Harvard University⁸⁾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1638년 John Harvard로부터 400권의 도서를 기증 받은 것을 가지고 출발하여, 오늘날 약 1,539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90개에 이르는 분관 도서관의 집합이다. 이 도서관은 미 의회도서관, 대영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The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하나이다.

이 대학은 Planned Giving이 발달되었다. 이 방법은 실제 은퇴한 하버드대학 동문들의 기부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을 소식지에 소개하면서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연스럽게 동문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 은퇴한 이들 하버드대학의 동문들의 대표적인 기부방법이 연금기부(gift annuity)이다.

2006년 하버드대학은 Andrew W. Mellon

재단으로부터 6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보조금은 디지털자료에 대한 전자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레지스터리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이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Global Digital Format Registry(GDFR)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 Yale University⁹⁾

예일대학은 1930년에 설립된 Yale Library Associates를 통하여 도서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Yale Library Associates는 2005년에 75주년을 맞이하여 「75th Anniversary Celebration Fund」를 만들었다. 이 기금의 설립목적은 첫째,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는 문서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는 이들 자료들을 현 세대에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해주며, 후대에게는 이를 남겨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서, 필사본, 사진, 악보, 지도, 사운드 레코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물리적인 손상과 훼손으로부터 이들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Celebration Fund는 2006년 12월 현재 이미 \$50,000의 challenge grants를 확보하였다. 즉 \$2의 기부가 이루어질 때마다 \$1의 challenge grants가 기금에 편입되는 방식이다.

2.3.2 국내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는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에 관한 연구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여 관련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기금 조성 유형

8) <http://hul.harvard.edu/gift.html>, [cited 2006. 8. 10].

9) <http://www.library.yale.edu>, [cited 2006. 12. 07].

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기업체를 통한 기금 조성, 둘째, 개인으로부터의 기금 조성, 셋째, 도서 연체료를 통한 기금 조성, 넷째, 도서관 공간의 임대를 통한 기금 조성, 다섯째, 사서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을 통한 기금 조성, 여섯째, 계좌 갖기를 통한 기금 조성 방법 등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를 통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 방법이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연세대 120주년 기념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 도서관은 삼성그룹에서 300억원을 지원하여 건립중인 도서관이다. 도서관 예상 공사비는 총 550억원으로서 연세대는 이를 모두 기금을 모집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삼성 기부금 300억원에, 동문기업을 통한 기부금 조성 120억원, 그리고 학교기금과 동문회를 통한 기금 130억원을 합쳐 총 550억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는 2004년 현재 「연세대학교 발전기금」중 「제2도서관 건립기금」으로 100억 24백만원을 조성하였다. 포항공대의 경우 설립주체인 포항제철에서 이 학교에 1,300억원을 기부하여, 이중 「청암학술정보관」을 490억원을 들여 건립하였다. 이 밖에 전남대는 부족한 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 교보문고에 기증요청을 해서, 1984년에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기부 받았다. 전남대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기금관리는 대학본부에서 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숙명여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숙명여대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신한은행으로

부터 약 79억원을 기부 받았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도서관 로비를 「신한로비」로 이름 지었다.

둘째, 개인으로부터의 기금 조성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대에 도서관 장서기금 설치를 위하여 250억원을 기부한 한화회장 김승연과 태성고무화학의 전 회장인 정석규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건립비로 31억원을 기부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KAIST는 재미동포인 이종문씨가 카이스트에 기부한 \$2,000,000를 가지고 「이종문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이 도서관은 설치비 6천만원, 관련 도서구입비 5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조선대는 지역의 기업가인 염홍섭의 기부로 도서관에 「성암 인터넷실」을 설치하였다.

셋째, 연체료를 통한 기금 조성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대의 경우다. 이 대학 도서관은 연간 약 3천만원 상당의 연체료 수입을 도서관신축을 위하여 1997년부터 도서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넷째, 도서관의 공간을 임대한 기금 조성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대학의 소비조합과의 영역 문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도가 쉽지 않은 사례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유일한 사례로 KAIST의 경우가 있다. 이 대학은 과학도서관 1층에 북카페를 임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도서확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사서들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을 통한 기금 조성 방법이 있다. 연세대 직원들이 대표적인 경우로써 2005년 6월부터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씩 약정서에 따라 일정액을 각출하여 도서관 건립기금을 모으고

〈표 3〉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대학교	시기	기부액	기금모금 내용
고려대	2003	40,000	삼성 기부로 백주년기념도서관 건립
경북대	1992~2006	56	92년부터 조성, 개인기부
경상대	1998	80	개교 50주년 기념 "도서기금" 출연 운동
대전대	2002	약 20	개인기부
서울대	2003.5	20	중앙도서관 학술기금 모금
	1999~2004	3,130	사업가 정석규 기부로 신양학술정보관 건립
	1996	25,000	한화회장 김승연장서기금 설치, 운용중
서강대	1999~2006	약 50	매년 도서관자료구입비로 졸업생기금 5백만원씩 출연
세종대	2000-2006	300	기업체 기부
숙명여대	2004	7,900	신한은행 기부, 도서관로비를 신한로비로 명명
	2004~2005	100	도서관내 인터넷실 설치
연세대	2005	45,000	삼성기부(300억)와 기타 기부금 모금으로 연세대 120주년 기념도서관 신축중
	2005	1,000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김대중도서관 지원
이화여대	1980-1983	약 18	이화국제재단에서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모금
전남대	1984	100	교보문고에서 도서구입비 지원, 현재 운용중
전북대	2005	3,200	성원법학전문도서관 건립
조선대	2002	100	성암 임홍섭회장 기부로 「성암인터넷실」 설치
중앙대	1997~2006	237	1997년부터 도서관신축을 위해 연체료로 조성
충남대	2007.4현재	545	대학발전기금 중 도서기금 지정기탁
충북대	2004	80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 도서기금
포항공대	2003	50,000	청암학술정보관 건립
한밭대	2006	약 20	대학평가 대비, 1인 1구좌 갖기 운동
KAIST	2005	약 560	이종문도서관 설치
	2002	100	도서확충기금

※ 위 표는 도서관 방문과 설문조사시 사서들의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한 것임.

있다. 예상 목표액은 82백만원으로서, 2008년 5월에 완공되는 「연세대 12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 때까지 모금할 예정이다(동아일보 2005). 기금 조성 제안은 도서관 직원들로부터 나왔으며, 관장도 참여하고 있다.

여섯째, 계좌 갖기를 통한 기금 조성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밭대와 경상대가 1인 1구좌 계좌 갖기를 통한 도서관기금 조성을 시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2.3.3 기금 조성 조직과 예산

일반적으로 기금조성 조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중의 하나를 가지게 된다고 Susan K. Martin은 말하였다. 그것은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이다(Susan 2000, 565-566).

첫째, 중앙집중형 모델에서 대학발전부서는 대학 전체를 위한 발전 활동을 이끈다. 이 경우 도서관은 발전담당 직원의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대학도서관에 있

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도서관은 후원회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비서나 행정직 직원을 둘 수 있다. 모든 발전부서 직원들은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동창, 학부모, 친구를 만나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한다. 이 중앙 집중식의 문제점은 각 발전 담당자에게 학교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도서관의 필요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을 대학의 총장이 기금 조성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 한 대화 중에 언급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둘째, 분산형 모델에서 대학의 전체 발전 프로세스는 대학의 각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대학에 따라 도서관은 본부의 발전부서로 하여금 발전담당 직원을 보내도록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단점이 숨어 있다. 즉 대학본부 발전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다. 대학본부의 발전부서는 기부약정, 회사와 재단으로부터의 기부, 홍보, 이벤트 계획 등 여러 가지 기금조성 활동의 중심 센터이다. 반면 완전히 독립적인 도서관기금 조성 조직은 폭넓은 후원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완전히 분산된 시스템에서는 대학의 여러 기금조성 부서들이, 기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각자 접근해야만 하는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부자가 기관의 어느 곳에도 기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혼합형 모델은 대학본부와 도서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여러 방식으로 발전담당 직원을 둔다. 만약 도서관이 기금조성 캠페인 중이라면, 그 직원은 풀타임이

될 것이고 소수의 부하직원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담당 직원이 대학본부의 발전부서나 도서관에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양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Susan K. Martin은 경험상 대학본부의 발전부서에 보고를 하는 발전담당 직원이 도서관 사무실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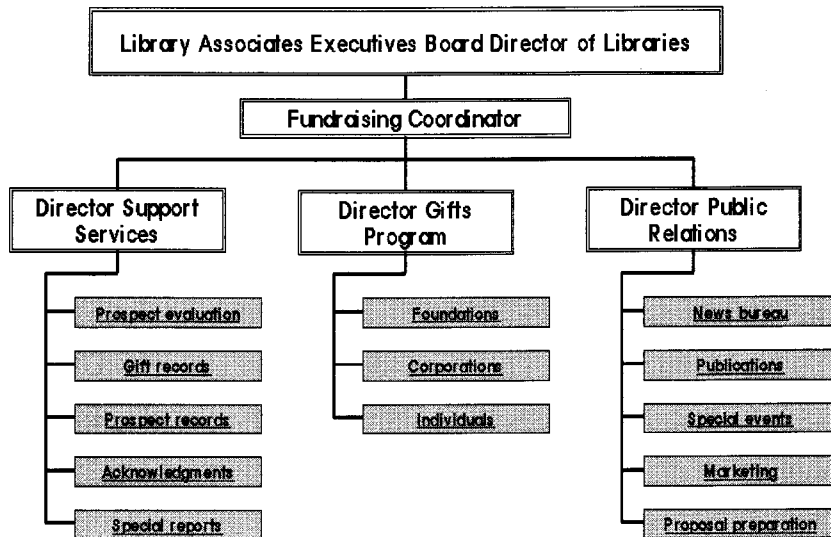
〈그림 1〉은 University of Kentucky 도서관의 기금 조성을 위한 조직도이다. 기금 총괄책임자 산하에 각각 지원서비스 책임자와 기부 프로그램 책임자 그리고 홍보 책임자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학발전기금 조성 조직을 참고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조직 형태는 상설 혹은 한시조직의 형태로서 모두 중앙집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발전기금 조성 조직을 통해 모금한 금액의 일부를 도서관에 할당하거나, 경북대와 충북대의 경우처럼 기부금 약정시 「도서관기금」 명목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케 하고 있다.

한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의 운영과 마케팅을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 즉 모금 담당 직원 인건비, 홍보비, 마케팅비, 우편 발송비 등 공공요금, 통신료 등이 들어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관련 학회 등에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Robert A. Ashton의 기부피라미드에 의하면 잠재적인 지지자·구성원·커뮤니티 단계

Organization for Fundraising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 Library



〈그림 1〉 University of Kentucky Library의 기금조성 조직도(Hwa-Wei 1991, 65)

에서 기부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당 \$0.8의 비용이, Annual Fund / Membership 단계에서는 \$0.3의 비용이, Major Gifts 단계에서는 \$0.1의 비용이, 마지막으로 Ultimate & Planned Gifts의 단계에서는 \$0.03의 비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Butler 2001, 18).

또한 Thomas E. Broce는 기금 조성 비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Hwa-Wei 1992, 6).

- Annual funds programs: 11-37센트
- Major gifts: 5-11센트
- Corporate gifts: 3-11센트
- Deferred gifts: 0.6-3센트
- Foundation gifts: 0.5-2센트
- Capital campaign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비용의 4-7%가 소모됨.

Texas A&M 대학의 Texas A&M Foundation이 2005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04-2005년 기금 조성시 달러당 11.5센트가 들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⁰⁾

또한 뉴욕공공도서관의 경우도 기금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있다. 그 비용은 본관에서는 예산의 1%에 해당하는 \$1,460,000, 연구도서관에서는 예산의 5%인 \$6,550,000가 기금의 조성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이진영, 이기숙 2004).

10) <http://giving.tamu.edu/content>. [cited 2006, 7, 19].

3.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 전략

대학도서관기금은 일반 기금 및 대학기금과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이 국내외 대학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 조성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도서관기금 조성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의 장애요인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대학사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사서들은 대학당국의 무관심과 의지의 빈약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사회적 환경 혹은 여건의 미성숙, 그리고 대학도서관 경영자의 무관심 혹은 의지의 빈약과 법적 제도적 규정의 미비, 사서들의 무관심 혹은 의지 빈약, 기금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기금 조성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은 사서들이 지적한 대학당국의 무관심과 의지의 빈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대학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도서관 기금조성을 위해서 사서는 우선 대학의 행정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도서관이 외부기금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이나 대학원(school)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기금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물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위한 기금조성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에 대한 사회적 환경 혹은 여건의 미성숙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아직도 일부 소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 기부하는 집단은 대학교의 전현직 교수를 포함한 관계인과 대학 동문 그리고 기업과 대부분 유산의 형태로 기부를 하는 개인 등 크게 네 그룹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소수의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그룹은 모두 대학교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관계로 기부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을 통한 연간기부금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대학에 기부하는 것이 아직 관련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이 아직 전액 손실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국립대학교는 직접 기부금을 모집 할 수가 없어 대학의 발전재단을 통한 기금 조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인 여건이 대학도서관의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2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의 성공요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에 있어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본 연구자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사서들은 도서관기금 마련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조성 프로그램과 도서관기금 조성을 위한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대학의 명성과 기부에 대한 전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기금 마련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조성 프로그램”은 결국 대학도서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 조성 전담조직은 대학본부의 발전기금 조성 조직 내에 설치하거나 혹은 도서관 기금 조성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 두 가지 유형을 보인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University of New Hampshire를 들 수 있으며, 후자는 University of Kentucky, University of Cornell 등을 들 수 있다(Meredith 2001, 61-95). 또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미국 대학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Challenge Grants를 들 수 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는 Challenge Grants를 이용하여 도서관 발전기금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경우는 University of New Mexico,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Cruz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한 기금조성 방법은 미국 대학의 기금 조성 담당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기금조성 방법이다

(Jennifer and Lynn 2000).

둘째, 도서관 기금 조성을 위한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은 대부분 도서관장 보다는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University of New Hampshire의 도서관기금 조성 책임자인 Claudia J. Morner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도서관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기금 모금 활동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서관책임자는 대학의 발전기금 책임자와 함께 기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조직의 내외부적으로 도서관의 후원회를 통한 최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전 팀에 참여하는 등 발전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책임자가 그의 업무시간의 50%를 발전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기금모금 캠페인 초기에는 이 수치가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Susan 2000).

셋째, 대학의 명성과 기부에 대한 전통이 중요하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한 대학이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 규모가 크거나 조성 시도가 먼저 있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성공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Ryan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기금조성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대학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잠재적 기부자들에 대한 대학의 사명에 대한 홍보 등 개인적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의 명성이 성공적인 기금조성에 필수적이며, 셋째, 재단이사회에 관한 것으로서,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 커뮤니티에 적합한 경쟁력을 가진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전성용 2000).

그리고 Butler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말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강력한 리더십, 둘째, 기금조성에 적합한 직원, 셋째, 훌륭한 예측, 넷째, 자원봉사자, 다섯째, 소규모 그룹, 여섯째, 적절한 유인책 등을 말하였다(Meredith 2001).

또한 Cornell대학 Mann도서관 캠페인의 경우는 성공적인 대학도서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도서관을 위하여 능숙한 대변자인 캠페인 의장의 리더십이 핵심이었다. 대학의 기금 모금 분야와 특별 기부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노하우는 기금조성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제공하였다. 그의 열정에 찬 확신과 그가 조성하는데 일조를 한 도전보조금(challenge grant)은 캠페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도서관은 프로젝트 팀 지도자의 헌신과 조직화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팀 내부의 우수한 팀워크를 통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는 팀원 각자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대학본부 기금 모금 직원과 대학동창회장 그리고 도서관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직원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즉 동문들의 모교 방문과 도서관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체험, 직원과 학생보조원에 의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은 「도서관의 친구들」이 도서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

다(Meredith 2001, 79).

마지막으로 Sumerford는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12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Bremer, Tracey L. 2001). “첫째,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현재 기금조성 환경을 조사한다. 셋째, 기금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넷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기금조성 방법을 개발한다. 다섯째, 모든 돈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편입되도록 한다. 여섯째, 잠재적인 기부자의 우선 순위와 연결되는 프로젝트 형태를 구성한다. 일곱째, 프로젝트의 목적과 관련 있는(기부)재단을 조사한다. 여덟째, 지역 기업들의 기부 유형을 조사한다. 아홉째, 개개인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기부 혹은 기부 약정을 요청한다. 열 번째,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홍보 자료를 발행한다. 열한 번째, 다른 조직과 협력한다. 열두 번째, 기부자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는다”라고 하였다.

3.3 대학도서관기금의 전략적 조성 방안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1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조성

대학도서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자체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도서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

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부금 조성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슈테판 퇴플러에 의하면 이러한 기부금을 조성하는 재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단순기부자형(Gift-Givers), 투자가형(Investors), 공동협력적인 기업가형(Collaborative Entrepreneurs)이다(헬무트 안하이어, 슈테판 퇴플러 2002). 이와 관련하여 재단을 통한 기부금조성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Faye 1993).

첫째, 예산의 탄력성이다. 예산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비용지출에 있어서 임의로 집행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재단은 기금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기금의 적립이다. 많은 도서관은 그들이 적립할 수 있는 건축기금이나 여유자금의 액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재단의 기금은 예산 제안서 제출이나 예산협의 없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협력자나 재단의 투자수익으로 매년 수입을 올림으로써 기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투자기회이다. 도서관은 만약 그들의 기금이 안정성 문제로 제한받는다면, 도서관재단은 도서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투자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지원이다. 도서관이사회 구성원들은 도서관의 장단점을 잘 알 것이고,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신뢰구축이다. 재단을 설립

함으로써 느끼는 또 다른 이익은 재단이란 용어 자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감이다. 도서관 위원회나 도서관재단의 운영위원으로써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의 리스트는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지원에 대한 확신과 동기를 유발시킬 것이다.

여섯째, 자격획득이다. 도서관재단은 공공도서관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주요한 재단들은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도서관재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서관박물관진흥원」과 같이 도서관기금 조성의 이의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가칭 「도서관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도서관협회」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기금의 조성을 위한 공신력을 주기에 부족하다. 즉 사단법인 형태보다는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형태가 기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훨씬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 진흥을 위하여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을 설립하였듯이, 도서관기금 조성의 같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많은 사업에 반관반민 형태인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현재 도서관 진흥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도서관 협회를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미국의 몇몇 주(州)는 법률에 의해서 도서관에 지원되는 재산세의 조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Alice & Edwin 1994).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도 2002년 발표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도서관진흥기금의 모금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서관협회 등에 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모금을 위해 국가는 ‘목적세(가칭 도서관세)’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따라서 도서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택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도서관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서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반시설부담금」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기반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말한다.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전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 혹은 새로운 재원(세금 포함)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 결과 타당성이 있으면, 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학술단체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통례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도 관련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수주 하였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들 즉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메릴랜드주의 사례를 예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미국 각 주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례로 예시한 세부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없는 항목이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용도의 하나로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재원으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도서관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학교 못지않게 도서관을 필수시설로 여기는 것을 감안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법 제2조의 정의에서 보듯이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지역혁신에 대한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역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대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신규 설립과 확충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성되어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원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 제4조에도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정의와 제4조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사항에 지역대학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지역대학의 핵심시설인 지역대학 도서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3.2 도서관 후원조직을 통한 조성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서관의 친구들을 통한 기금 조성이 활성화 되어 있다. 도서관의 친구들이란 도서관과 관련된 지역 주민, 학생, 교사 혹은 교수, 학부모, 동문,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김석영 2005). 김석영에 따르면 이들의 역할은 도서관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재정 운영에 참여하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도서관 마케팅에 참여하

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도서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역사회 홍보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의 친구는 1925년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의 친구'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수 백개의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Dolnick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약 3,000개의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있으며, 회원도 백만명이 넘는다고 하였다(김석영 2005, 280-283).

Alice Gertzog and Edwin Beckerman도 도서관의 친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대규모의 적극적인 도서관의 친구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도서관 직원이나 도서관위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bulk)를 제공한다. 그들은 예산의 증액을 위한 제안서 제출, 기금조성 캠페인,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법안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활동 등에 활용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Alice and Edwin 1994, 479).

그리고 The University of Texas - Austin도 도서관의 친구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도서관장서를 늘리는데 일조한다. 둘째, 도서관 장서를 보존하고 보호한다. 셋째, 지식의 프론티어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교육과 연구를 위한 안락하고 다양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섯째, 예술도서관과 자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또한 오하이오주립대는 도서관의 친구들의 활동에 대해 첫째, 대학의 매학기 강의들을 후원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도서 판매를 실시한다. 셋째, 도서관의 근로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넷째, 도서관의 친구들의 소식

지인 “Gatherings”를 발행한다. 다섯째, 매년 “Readathon¹¹⁾” 이벤트를 후원한다. 여섯째, 도서관의 친구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였다.

한편 도서관의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회비를 내야 하는데 The University of Texas - Austin의 예술대학은 도서관의 친구들을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 Reader’s circle: 학생/ 직원: \$25, 일반인 \$50
 - 「예술대학도서관의 친구들」 회원카드
 - 텍사스대학도서관 소식지 정기구독
 - 특별이벤트 사전 공지
 - 도서관의 친구들만을 위한 이벤트에 초대
- Collector’s Circle: \$100
Reader’s circle의 혜택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 도서관의 친구들만을 위한 이벤트에 친구들을 동반한 초대
 - 텍사스대학도서관 소식지에 소개
- Conservator’s Circle: \$300
Collector’s Circle의 혜택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 도서관의 특별 프로젝트의 하나인 behind-the-scenes tour 가능
 - 텍사스대학 도서관 특별 대출자 카드
 - Blanton Museum of Art에 무료입장
 - 친구와 친척들에게 무료로 “Reader’s

Circle” 기부 회원 카드 발급

- Librarian Circle: \$500
Conservator’s Circle의 혜택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 관심 있는 예술 작품들에 대한 수석 사서와의 상담과 주제전문 사서에게 예술 작품들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년중 특정 기간에 열람이 제한된 작품에 대한 감상 기회 부여
- Director’s Circle: \$1,000
 - 텍사스대학 도서관 관리자와 예술대학 도서관 수석사서와 함께 연말이벤트를 포함한 각종 특별 이벤트에 초대
 - 기타 Director’s Circle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추가적인 특권 등

또한 오하이오주립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조성하고 있다.

- 개인: 학생(\$10), 노인(62세이상, \$20), Regular(\$30)
- 기타: 가족(\$50), 기부(\$100), 지원(\$250), 후원자(\$500)

따라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로 하여 도서관 친구들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친구들은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거나 도서관의 정

11) Readathon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년 중 특정기간을 정해 어린이들에게 책읽기 행사를 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Readathon 프로그램의 명칭과 참여 학생수 등을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행한다. 이 때 소요되는 책들은 Readathon 조직위와 연계하여 후원하는 출판사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1984년에 시작되었다(<http://www.readathon.org>, cited, 2007, 6. 2).

책결정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거나 인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재정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단계의 회원 자격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에 기부를 하고, 도서관매 등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활동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재원 확보 경로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통한 각종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인력 효율화에 기여하며 인건비 절감 및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기금조성 실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금조성 방안을 다음과 같은 면에 중점을 두고 조사·분석 하였다.

먼저 현 상태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 실태를 파악하였다. 즉 대학도서관기금을 조성한 사례와 기금 조성시 어떠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사,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 상태에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대학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맞는 도서관 발전기금 조성 방안을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과 기타의 방안 등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 내용을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수도권에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지방에서도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기금조성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한편 대학도서관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도서관박물관진흥원」과 같이 도서관기금 조성의 이의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가칭 「도서관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도서관협회」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기금의 조성을 위한 공신력을 주기에 부족하다. 즉 사단법인 형태보다는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형태가 기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훨씬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많은 사업에 반관반민 형태인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여러 주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재원으로 도서관을 반드시 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도서관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학교 못지않게 도서관을 필수시설로 여기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 도서관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법을 개정하도록 도서관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서관의 친구들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

서관의 친구들은 대학서관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대학서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거나 인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여러 단계의 회원 자격을 통하여 대학서관에 기부를 하고, 도서관매 등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활동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재원 확보 경로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서관에 자원봉사를 통한 각종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인력 효율화에 기여하며 인건비 절감 및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6. 대학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3-28.
- 김석영. 2005. 도서관의 친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279-294.
- 노문자. 1999. 도서관의 후원기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0: 175-212.
- 백호승. 2006. 기업과 도서관의 행복한 만남 기부문화. 『도서관문화』, 39-40.
- 스기야 아키코. 2004.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이진영, 이기숙 옮김. 서울: 지식여행.
- 엄영애. 2004. 사서직의 전문직 요건과 수행업무에 대한 연구. 『문헌정보학회지』, 38(3): 174.
- 전성용. 2000. Understanding of American Community and/or Junior Colleges' Alumni Fund Raising and Their Successful Methods and Techniques For Two-Year Private Colleges in Korea. 『육사논문집』, 56(3).
- 조윤희. 2005. 대학서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211-231.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헬무트 안하이어, 슈테판 퇴플러 공편. 2002. 『재단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Bremer L, Tracey L. 2001. *Library Funding ERIC Digest*. Syracuse NY: ERIC Clearinghouse 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3-4.
- Burlingame F, Dwight. 1994. "Fund-raising as a key to the Library's future." *Library Trends*, Vol.42, no.3: 467-477.
- Butler A, Meredith et al. 2001. *Successful Fundraising: case studies of Academic Librarie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Clow Faye. 1993. *Forming and Funding Public Library Foundations*, Chicago: A.L.A.
- Gertzog Alice & Beckerman Edwin. 1994.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Library*. Lanham, Maryland: The Scarecrow Press.

- Hazard L. Brenda. 2003. "Online Fundraising at ARL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9. no.1: 8-15.
- Hoffman M. Irene, Smith Amy, and Dibona Leslie. 2000. "Factors for Success: Academic Library Development Survey Results," *Library Trends*, Vol.48. no.3: 541-550.
- Latour Stephen Terry. 1995. *Study of library fund raising activitie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Ph. D.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 Lee Hwa-Wei & Hunt A. Gary, Fundrasing for the 1990s the Challenge ahead, Canfield, Ohio: Genaway & Associates, Inc, 1992.
- Martin K. Susan. 2000. "Academic Library Fund-Raising: Organization, Process, and Politics", *Library Trends*, Vol.48, no.3: 560-578.
- Paustenbaugh Ford Jennifer. 1999. *ARL academic Library participation in a capital /comprehensive Fund-Raising campaigns: an analysis of effectiveness and capacity*.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 Paustenbaugh Jennifer and Trojahn Lynn. 2000. "Annual Fund Programs for Academic Libraries," *Library Trends*, Vol. 48. no.3: 579-596.
- Potts Christine Janet & Roper de P. Vincent. "Sponsorship and Fundraising in public libraries: American and British perceptions," 14-15.
- Ronelle K. H Thomson. 1991. Supplementing library Budgets through grants and gift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cquisition, budgets and collections, April. 1-11.
- Totterdell Anne. 2001. *The Library & Information Work: Primer*. London: Library Association.
- Winston D. Mark & Dunkley Lisa. 2002. "Leadership Competencies for Academic Librarians: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and Fund-raising",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63, no 2: 171-182.
- <http://giving.tamu.edu/content>, [cited 2006. 7. 19].
- <http://hul.harvard.edu/gift.html>, [cited 2006. 8. 10].
- <http://library.stanford.edu>, [cited 2006. 8. 10].
- <http://library.uwaterloo.ca>, [cited 2006. 12. 07].
- <http://www.calstatela.edu/library/FOL/>, [cited 2006. 7. 19].
- <http://www.library.yale.edu>, [cited 2006. 12. 07].
- <http://www.utexas.edu/support/news-pub>, [cited 2006. 7. 29].
- <http://www.lib.umich.edu>, [cited 2006. 8. 10].
- <http://library.albany.edu/giving>, [cited 2006. 6. 7].
- 『동아일보』, 2005. 연세대 120돌 기념도서관 우리 힘 보태요, 6월 20일.